

뉴저지교협 전 회장단 대표에 이병준 목사

이병준 목사(뉴저지 한길교회 담임)가 뉴저지교협 전 회장단 대표로 추대되었다. 김창길 목사(뉴저지장로교회 원로목사)는 고문으로 추대되었다.

뉴저지교협 전 회장단은 8월 18일(화) 오전에 모임을 갖고, 뉴저지교협 회칙 제7장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'전 회장단'을 구성했다.

뉴저지교협 회칙 제7장 제19조는 "(전 회장단)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회장단의 조언을 받는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뉴저지교협 전 회장단은 회장단의 대표자를 '회장'이 아닌 '대표'로 호칭하기로 했다.

대표로 추대된 이병준牧사는 "전 회장단은, 회칙의 규정에 있



이병준 목사

는 것처럼, 교협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역할에 그칠 것"이라며 "어떠한 경우에도 교협이나 교협 회장이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"이라고 말했다. [기사·사진 제공=복음뉴스]